

보도시점 2025. 12. 29.(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5. 12. 26.(금)

에너지바우처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 수급 가구에 지원금 51.4만원으로 확대

- 내년(2026년) 1월 22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수령 후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에 기존 평균 36.7만 원인 지원금액을 51.4만 원까지 14.7만 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등유와 액화석유가스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이며,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 대상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추가 지원 금액인 14.7만 원이 담겨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년(2026년) 1월 22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선불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이번 추가 지원금의 사용기간은 기존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2026년 5월 25일까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함께 취약 계층이 추가 지원금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에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개별 문자와 우편으로 대상자 여부와 카드 수령을 안내를 하고,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서 수령 방법과 지원금 이용 방식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등유·액화석유가스 가구에는 내년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가구 등 저소득층에 벽·바닥 단열공사, 창호개선,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열성능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이 근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도시가스와 달리 등유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에너지공급사의 요금할인이 없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욱 소외되어 있다”라며, “이번 조치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어려운 국민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사용가구 지원 확대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책임자	팀 장	김도현 (044-201-7510)
		담당자	사무관	오병주 (044-201-6962)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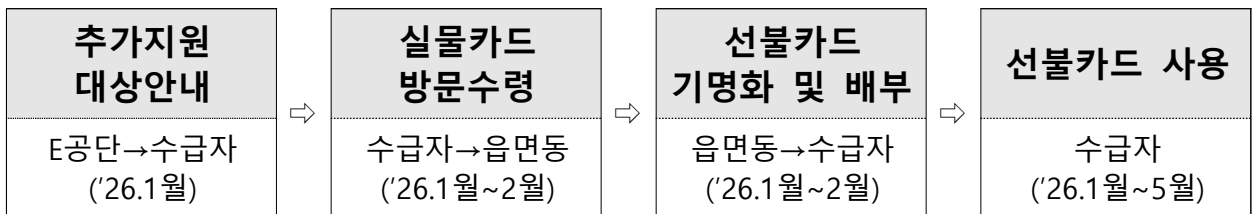
- 고환율에 따른 연료비 부담 증가에 대응해 도시가스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등유·LPG가구 추가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 (지원내용) 일괄 147,000원 지원(선불카드)

구분	지원단위	지원금액	이용권 형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1인	147,000원	선불카드
	2인		
	3인		
	4인 이상		

- (사용기간) '26. 1. 22. ~ '26. 5. 25.
- (추진체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등유·LPG 추가지원 대상자에 안내 문자 및 우편을 발송하고, 수급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 확인 및 선불카드 기명화 작업 후 카드 배부



* 수급자는 선불카드 수령 후 익일부터 사용 가능